

지역 소식 통

정읍시, 폭염 대응 마을회관
경로당 728곳 선풍기 지원

정읍시가 폭염으로부터 어르신과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728곳에 선풍기 797대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뿐만 아니라 비정규 시설까지 포함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됐다. 선풍기는 시설 규모와 이용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부했다. 시는 올여름 폭염 대응 위해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및 필터 청소 △무더위쉼터 생수 지원 △시내 주요 지정 열음생수 보급 △폭염 행동요령 홍보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다양한 종합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선풍기 지원 역시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선풍기 지원과 함께 폭염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5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3일 오전 10시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장인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군, 경찰, 소방, 해양경찰, 유관기관 등의 1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2025년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안군 을지연습 상황 보고 등 을지훈련 관련 기관별 토의를 실시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한 1대대,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부안해양경찰서 등 모든 유관기관에서 성공적인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인원 및 장비 지원은 물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양단체전 D-30 ‘성공다짐대회’ 개최

고창 동리국악당서 지역 체육인들 · 자원봉사자 등 참석… 퍼포먼스 등 진행

고창군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성공 개최를 향한 합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 체육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민 양단체전 D-30 성공다짐대회’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과 체육회 임원,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고창군은 한 달간 공개모집을 통해 자원봉사자 300명을 선발했다. 이번 자원봉사자 중 최고령은 서순희(78) 어르신이고 최연소는 서지민(14) 학생이다. 이들은 밝은 미소로 선수단과 관중 등 대회를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 가장 완벽한 자원봉사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성공다짐 퍼포먼스에서는 주요 내빈들이 체전 마스코트와 8개 주요



고창군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성공 개최를 향한 합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종목 상징물을 틀에 끼우자 현수막이 떨어지며 대회 성공의 염원을 담은 장면이 연출됐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피켓을 들고 함께 기념촬영에 나서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5년 전북자치도민 양단체전이 모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대회가 고창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9월12~14일 제19회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는 9월 26~28일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약 2만여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참여해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며 도민 화합을 이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필요”… 한목소리

정읍시, ‘융복합산업 활성화’ 주제 생산~유통까지 전 과정 발전 전략 모색 세미나

정읍시가 ‘정읍지황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13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지황 재배농가를 비롯해 생화차집 · 제조가공업체, 전문가, 유관기관, 시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정읍지황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계획 △지역 농산물 사용 인증제의 이해와 도입 사례 발표로 시작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재배·가공·유통 과정에서 직면한 현안과 해결책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지황 재배농가 소득 향상, 고품질 생산과 품질 표준화, 정읍지황 사용 기준 마련, 가격 경쟁력 확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필요성 등 실질적인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황 산업의 미래를 위해 품질과 신뢰 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공식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읍시가 ‘정읍지황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입을 모았다. 유호연 부시장은 “정읍지황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농업·산업·문화가 어우러진 소중한 자산”이라며 “산업 주체들과 협력해 생산 기반을 지키고, 가공과 유통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1992년 지황 주산단지 지정, 2015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2022년부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정읍지황 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동 편의성 · 도시 균형발전 도모

정읍시, 시가지 순환도로망 ‘수성 · 구룡 연결도로’ 용역 착수

정읍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가지 순환도로망 핵심 구간인 ‘수성 · 구룡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숙원사업으로, 총연장 약 1.2km 구간을 연결해 도심 통과교통을 순환축으로 분산시키고 수성동과 상동 생활권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역은 시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권역별 교통수요 분석 및 장래 통행 예측 △대안 노선 설정과 교차로·접속부 설치 계획 검토 △사업비 산정과 경제성 분석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 △증장기 도로망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수성 · 구룡 연결도로는 시가지 순환도로망의 핵심 축으로, 도심 교통 분산과 생활권 연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용역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벗짚환원 사업 9월 5일까지 신청 접수

부안군은 논 토양의 지력 증진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벗짚 환원 사업을 9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벗짚환원 사업은 벼 수확 후 발생하는 벼짚을 절단해 농경지에 다시 환원하고, 가을갈이를 실시해 벗짚 속 유기물과 영양분이 토양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신청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저탄소농업 프로그램(가을갈이) 참여 농지 등 타 유사보조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

하다. 신청 가능 면적은 최소 0.1ha에서 최대 3ha까지이며, 신청량이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면적이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이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경 1ha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벗짚 환원은 토양 내 유기물 축적과 미량 성분 보충을 통한 지력 증진 효과가 크며,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통시장 자율안전점검 · 화재예방 총력

고창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고창소방서는 13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캠페인을 실시하며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점검을 통한 화재위험요소 제거를 목표로 진행됐다. 고창소방서와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는 시장 상인들에게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표를 배부하고, 점포별 화재취약요인을 스스로 점검·개선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사례와 ‘화재 초기 대응 요령’을 알리고, 비상구 확보 · 문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가스밸브 잠금 등 생활 속 실천 방법을 강조했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만큼 상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